

두번째의 새스타일: 世界 젊은 美術家들의 饗宴

The 2nd New Style: A Festival e Young Artists of the World

제9회 파리 비엔날 參加記

李康昭 (Lee Kang-so)

두드러진 사소한 關心事

격년제의 국제미술전인 제9회 파리 비엔날은 파리시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뤼세 갈리에라에서 75년 9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렸다. 제8회에 이어 이번 9회 비엔날은 파리비엔날 史上 두번째의 새로운 스타일의 비엔날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시스템이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적으로 호응을 얻은 결과였다고 한다. 이의 특색은 현재의 전세계에서의 예술행위를 계속 조사 관찰한 결과에 의해 세계를 망라한 젊은 예술가 100여사람이 함께 파리 현지에서 작품을 내 놓고 참여하는 것이다.

유감인 것은 라틴아메리카인이나 아프리카인, 인디언등은 참여치 못해 그들의 전통적인 표현이나 민족특유의 표현방법을 볼 수 없었던 점이다. 그러나 비엔날 주최측의 특별초청으로 뤼세 갈리에라 에서는 中共 특별전이 있어서, 80명의 농민화가의 작품들이 진열돼 비록 공식 전문가가 그린 것이 아니라지만, 비개성적이고, 교과서적이며, 선전적인 천편일률의 기법에 예술의 비극을 보는 것 같았다.

비엔날 참여작가의 구성은 150명의 코레스푹당(세계 각지역의 비평가 예술가로 구성됨)이 추천한 750여명의 젊은작가들 가운데서, 본 비엔날의 주관자인 12명의 국제운영위원이 다시 선정한 123명이며. 이중에는 필름과 비디오투를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도 많이 있다. 9회 비엔날의 책임자인 조트주 브다유씨의 말을 빌면 그들 운영위원회는 위원 각기 서로 방해를 받지않고, 또한 작가들의 인종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교의에 상관않고, 문화 혹은 정치에 관심이 없이 자연스럽도록 노력했다고 하며, 단지 출품작가의 연령을 35세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율타리라 했다. 이시대 미술의 한계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세계에 너무나 엄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상의 기준이 응당 광범위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들이 취한 판단기준 가운데서 일반적인 사항은 국제적인 스케일 위에서 예술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선정했다고 하며, 또 예술가 자신들의 독창성과 개성, 그리고 그들의 과거작품을 봐서, 작가가 외부의 영향을 압도하는 능력과 표현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능력을 봐서 선정했다고 한다.

이번 비엔날에서 발표된 작품들이 표현한 방법들의 양상에서, 개념예술, 프로세스 아트, 사진이나 다른 미디어에 의해 풍경등을 이용하는 것, 여러가지 크기의 모뉴망이나 건축적 오브제에 이르기까지의 환경물,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전통 공예의 이용, 사회 문제나 비평적, 혹은 정치적 예술, 벽에 거는 것과 공간을 변경하는 시도, 추상예술의 새로운 전개, 텍스처로 만든것, 보디 아트등으로 브다유씨는 편의상 분류해 보았다고 하면서 기법이나 방법에 따라 예술가를 분류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렇듯 이들의 방법은 자유스럽고 다양하다. 작품들의 전시는 뮌헨 갤리에라(중공작품 진열)를 제외한 시립및 국립현대미술관내의 독립된 방, 혹은 벽면, 옥외공간등에서 작품에 알맞은 공간에 전시, 또는 행위되어졌었다. 이들 작품들 가운데 특히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억지로 강조된 느낌의 행위나 구조물, 혹은 독특한 방법에 의한 이색적인 기발함에서 보다 아무의미 없듯 조용하다거나 속삭이듯 하다거나 매우 소홀히 보인다거나 하는 개인의 일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듯한 개인취향의 사소한 관심사에 관한 행위나 작업이 많아보이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비데오의 작품들에서 의미없는 몸짓의 반복을 계속 보여준다든가, 신체의 한부분이 다른 부분에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음으로써 그 부분의 미묘한 변화를 화면에 지루할 이만큼 계속 보여준다든가, 또 X자형 창틈으로 보이는 길의 변화를 시종 화면을 고정시켜 보여준다든가, 아주 사소한 일상사의 미미한 단편을 화면에 등장시켜 확대, 노출시켜 보여준다든지, 한 장의 평범한 사진을 가지고 그속의 부분 부분을 클로즈업시켜 보여 준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분석적 그들과 종합적 우리

그외 경간작품들에서 어떤 작가는 열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나뭇잎이나 줄기로 제멋대로의 묘한 형상을 만들어 천진스러운 정감을 갖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이는 수백개의 조그만 돌로 석기시대의 돌화살촉을 만들거나 돌에다 원시적인 흔적을 새겨두거나, 또는 똑같은 조그만 크기의 전 부속품을 집합시키거나 해서 자기나름대로의 역사박물관의 진열품을 이룩해 놓아 언뜻 보기에 정말 수집가이거나 한듯이 냉큼 내놓고 있다든가 하고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눈을 끌고 있는 부류는 언뜻 보기에 십수년 전에 성행하던 앵포르멜작업을 보는듯한 착각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이들 작가들 가운데는 평판있는 몇몇 프랑스인을 주로해서 그외 유럽작가 2,3명과 미국인작품도 눈에 띄었다. 이 작품들의 기법은 갖가지 칠해진 제각기 다른 형태의 천들을 서로 겹거나, 한개의 큰 천이 물감(전통적으로 쓰이는)으로 겹칠되어 보이게 하거나, 또한 그러한 상태의 것을 다리미로 다린듯이 구획지어 구겨지게 하거나, 칠하고 킁고, 킁고 칠한 방법들이다. 이들 작업을 주의해서 보면 공통점들이 보인다. 물감을 칠해서 나타난 형상은 구체적이거나 아니라 비구상적이며, 마구 무슨 행위적인 양태로 보이고, 또 한결같이 나무액자가 없는 천 그 자체만 벽에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를 중심한 새로운 유의 미술운동(Support-Surface)이라고 그뒤 듣고 보고 했지만, 이러한 그들의 작업은 60년대 신사실주의 이래 프랑스에 있어서 새로운 첫 획기적인 전진이라고 주장할만큼 거센 물결로 파리 화단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들 이론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말레비치에 이르지만, 간단히 말해서 천과 물감사이의 물질적인 현상과 인간의 행위의 관계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나무 액자를 떼어낸 것은 작품공간과 일반공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과 실제작품 사이에 밀착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들 작업의 양태는 앞으로도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작업외에도 물론 많은 것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대개의 이를 유럽인들의 작품에서 우리와 방법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겠으나 발상법이나 느낌의 측면으로서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물을 개념화해서 파악하려는 성미라든가, 이미지의 붕괴를 부르짖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이미지에 얽매어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 그리고 주객

체의 관계가 분명한 의식등, 이들이 아주 분석적인데 비해 우리들은 종합적이거나 총체적인 성향을 가진데서 그러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사물을 보는데 은연중에 우주속에서의 상관관계로서 파악한다든가, 그들이 말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직 맛보지 못했으며, 또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 개념에서 의식적으로 배워 왔으나) 그들의 세계와 상이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작가는 沈文燮씨와 필자 두사람이었다. 워낙 우리들이 늦게 (오픈 바로 3일전) 도착했기 때문에 미리 얻어둔 방들을 다른 작가들(그들은 5개월 이전서부터 미리 대기하고 있기도 했다)에게 빼앗겼을 정도로 딱한 사정에 있었다. 마침 시종일관 우리를 도와주신 在佛화가 金昌烈선생의 눈부신 활동으로 가장 좋은 방들을 극적으로 갖게 되었던 것이다(이때 사무국측과 일본작가 사이의 갈등으로 일본작가 한사람은 출품을 포기하고 말았다).

沈文燮 「現前」과 李康昭 「無題」

沈文燮씨의 작품 「現前」은 10호 정도 되는 캔버스크기의 작품 20점을 벽면 제1실에 전시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부대나 캔버스를 문에 팽팽히 맨 다음 그 틀의 부분의 천이 여러 사물과 오랫동안 안 접하고 마찰이 생기는 가운데 낡고 헐어진 것처럼 샌드페이퍼나 줄로 굳이 문질러 놓은」 형태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공간론적 이건 시간론적이건 그 어느곳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응당 그렇게 될 수 있고, 으레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일부러 연출하여 놓느라고 애를」 써놓음으로써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자연스러움이랄까, 있는 그대로 같은 리얼리티가 이러한 일부러 저지르는 역설적인 장난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풍겨난다는 것은 흥미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심문섭 캐탈로그 서문에서 李禹煥씨의 글).

필자의 두개의 출품작품 가운데 하나인 「무제 1975-31」은 활가운데 깔아놓은 돛자리 위에 목재 닭먹이통에 살아 있는 닭을 긴줄로 매고, 먹이통 주위에는 흰가루를 뿌려 놓아 닭이 움직이는 흔적을 보이도록 해놓아 며칠의 시간이 경과한 후 닭은 도로 농장에 보내버려 그 후의 전시장에서는 이전에 전시장에 있던 모습을 찍은 10장의 사진과 실제의 흔적, 그리고 닭을 맨 노끈 길이만큼의 행동반경을 분필로 그린 흔적만 남아 있게 한 작품이고, 「무제 1975-32」는 3마리의 동물(사슴)뼈를 검정과 은색과 흰색으로 구분하여 그 뼈에다 번호를 붙여보기도 하고, 떼어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완전한 형태로 뼈의 조각을 맞추어 보고 또 뼈에 살이 붙은 것을 상상하듯 동물모양을 바닥에 분필로 그려 그위에 뼈를 가지런히 놓아보기도 하고, 한편의 뼈는 흩어지게도 한 유동적인 것이었다. 이들 닭이나 뼈들은 별난 소재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닭이나 돛자리나 혹은 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물들은 사물 그 자체에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닭이 아니라도 좋은 것이다.

어느날 닭에 눈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화랑에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설정이요, 설정을 구조해내는 것이며, 나의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 역시 특이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구조를 제시한 것, 즉 우주속의 보이지 않는 질서, 관계 등 보통 보이지 않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보임)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조(Moment)를 꺼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다. 그래서 나의 작품에 있어서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상 바뀌고, 사물과 사물의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지, 닭이나 돛자리는 문제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작업이 국제화단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작가 대부분이 항상 품고 있던 수수께끼였으며, 이런 국제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의 주시해왔던 것이다.

韓國과 日本이 매스컴의 초점

이번 비에날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들 외에 코레스퐁당인 李禹煥선생과 李逸선생이 같이 파리에 도착해 金昌烈선생과 첫날부터 작품진행과 한국의 국위를 위해 온갖 힘을 다 썼다. 9월 18일 오전 특별개막에는 프랑스 문화성장관 이하 여러 관리와 각계 및 미술계 인사들로 붐볐고, 오후에는 프레스 오프닝으로 TV, 신문, 잡지 등의 기자 등 하루종일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떠들석했다. 첫날부터 우리 일행은 우리들 작품의 반응도가 어떠한가 하고 사방으로 살피기에 바빴고, 沈선생과 필자는 또한 외국어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TV망들이나 신문들의 인터뷰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처음부터 매스컴의 초점은 우리 한국과 일본에 모였고, 다음날 공개 오픈날은 그 관심이 더욱 고조된 감이 있었다. 파리 프랑스 스와르지는 우리 작품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선정해 (9월 20일자) 사진 등으로 대서특필했고, 19일은 필자 작품을 프랑스 국영 TV로 초대받아 단독으로 출연하고 이때 李逸선생은 작품해설에 많은 애를 써주었다. 그 때의 며칠간의 저녁은 우리 일행들이 서로 모여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고, 李禹煥선생은 그때마다 우리들 작품에 어떻게 해서 어필하는가 비교설명했고,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자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그 이후의 일이지만 화랑가에서는 沈선생의 작품에 관심도가 아주 깊어 지금도 계속 의견의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또한 전문지의 비평에서도 우리들 작품의 반응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으로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또한 과연 우리가 한 일들이 충분히 잘된 일이었나 새삼스럽게 반성을 하며 책임감을 느낄 때면 두려움에 싸이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국제전에서의 참여와 그 결과가 훌륭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이 비에날에 참가한 사람뿐만이나, 또 여러 국제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전 미술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다. 혹자는 세계 일주다 유럽 여행이다 하면서(10수년을 살아도 잘 모른다는 미술계를 그 짧은 여정동안 어떻게 잘 봤던지는 모르지만) 귀국해놓고선 매스컴 인터뷰나 기사를 통해서 확실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편파적인 발언을 함으로 해서 국제전이 허구에 차있다느니 세계미술은 사실로 되돌아 간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으키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만이, 그것도 한두 세기나 수10년 전에 유행하던 일을 답습하는 사람이 세계 모든 미술계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과대선전하는 예들을 자주 본다. 그러한 발언이나 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우롱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참으로 우울하기 그지 없는 일들이다. 자기 일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서 그런것은 좋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술의 질서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술은 한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한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천 수만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엄격한 도(道) 일진대, 지금의 모든 미술계가 어떻게 것처럼 허술하겠는가? 아무쪼록 우리들이 행한 일들의 결과가 좋아져 9회 비에날에 우리의 참여가 보람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